

'막영애16', 현실 고민에 시청자 공감



영애의 결혼 과정 고민 생생하게 다뤄 평균 시청률 3.0% · 최고 3.8% 기록해

tvN 박태익은 영애씨 시즌16(이하 '막영애 시즌16') 6회가 결혼을 앞둔 영애(김현수 분)의 현실적인 고민들을 생생하게 다루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았다.

이날 방송된 '막영애 시즌16' 6회는 영애와 가족들의 갈등을 현실감 있게 담아내며 유료플랫폼 전국 가구 기준 평균 시청률 3.0%, 최고 시청률 3.8%를 기록했다. (닐슨코리아 / 유료플랫폼 / 전국 기준)

6회 방송에서는 결혼을 앞뒀거나 결혼을 경험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졌다.

영애는 웨딩드레스 속에서 자신보다 동생 영체(정다혜 분)가 더 돋보이고, 영체가 결혼할 때에 비해

엄마(김정하 분)로부터 적은 금액을

지원받아 가족들에게 섭섭함을 느꼈던 것. 또한 영체는 영애가 사기로 한 이빠(송민형 분)의 생신 파티 장소를 비싼 식당으로 예약해 영애의 서운함을 더했다.

하지만 영체 역시 부모님이 영애만 챙긴다고 생각해 서운해하고 있었던 것. 영애와 영체는 식당 엘리베이터에서 말싸움을 벌이지만 이내 서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이해해 깨닫고 울어 흐뭇한 공감을 자아냈다.

그렇게 두 자매의 다툼은 훈훈하게 마무리되나 싶었지만, 영애가 자신의 옷을 영체가 입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드잡이를 벌여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안겼다.

또한 이날 방송에서는 유산을 상속받은 미란(리미란 분)과 그녀로부

터 한턱 얻어 먹으려는 낙원사 식구들 사이의 이야기가 재미를 선사했다.

미란은 여러 요행으로 몇 차례 위기를 넘겼지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오히려 비싼 음식점에서 꼼짝없이 한턱 내야하는 상황에 봉착했던 것. 하지만 카드를 내민 그녀의 손은 어쩔지 모르다 돈을 아끼려는 그녀의 간절함에 허를 내들었다.

한편, tvN '박태익은 영애씨'는 2007년 4월 첫 방송 이후 대한민국 대표 노처녀 '이영애'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직장인들의 애환과 여성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담아내 시청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평을 받았다.

승준과의 결혼 등 인생 2막을 맞이한 영애의 이야기로 매회 특유의 공감과 재미를 선사하고 있는 '막영애 시즌16'은 매주 월, 화 밤 9시 30분에 방송한다.

'몽쳐야', 국내 패키지도 통했다...분당 최고 8% 육박



'몽쳐야 뚝다' 사상 첫 국내 패키지여행이 높은 시청률로 호평 받았다.

어제(19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된 JTBC '패키지로 세계일주 몽쳐야 뚝다'(이하 '몽쳐야 뚝다')가 시청률 6.2%(닐슨코리아 유료 가구 기준)를 기록했다.

게스트 비가 출연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한 50회(6.3%)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8%를 돌파한 것. 분당 최고 시청률은 무려 7.9%까

지 올랐다.

이날 방송은 '몽쳐야 뚝다' 사상 첫 국내 패키지여행을 떠난 김용만의 3명의 모습이 그려졌다. 게스트로는 '비정상 4인방' 기욤 알베르토 다니엘, 그리고 샘 오취리가 합류해 순천에서 통영, 거제도 이어지는 남해 일대를 여행했다.

최고의 1분은 한국의 멋과 맛이 담긴 '남도 보리굴비 정식'을 맛보는 비정상 멤버들의 모습이 차지했다.

샘 오취리는 "한국의 상차림은 정말 예쁜 것 같다"며, 연신 사진을 찍고 다니며 역시 "이건 예술 같다"며 감탄했다.

김용만은 "해의 패키지를 다니면서 사진도 잘 안 찍었는데 여기서

는 찍고 싶어진다"며 국내 패키지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다.

이외에도 멤버들은 순천에서 낙안읍성, 순천만 등을 여행하며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했다. '몽쳐야 뚝다' 사상 첫 14인 단체 여행객의 활약도 눈부셨다.

계묘일로 함께 한 이들은 단체 티셔츠 '이제 4인방'을 기증하는 남다른 입담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김성주는 "하네 14명과 함께 여행하는 느낌"이라고 허를 내들었고, 안정환은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이미 끝날 다녔다"며 기분 넘치는 동행들에게 감탄했다.

사상 첫 국내 패키지여행의 색다른 재미를 전한 김용만 외 3명과 '비정상 4인방'의 활약은 매주 화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JTBC '몽쳐야 뚝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유, '올해를 빛낸 가수' 1위

'발렌지', '가을 아침' 등 히트곡을 낸 가수 아이유(연·본명 이지은)가 올해를 빛낸 가수로 뽑혔다. 아이유는 19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연말을 맞아 공개한 '올해를 빛낸 가수' 설문에서 응답자 15.2%의 선택을 받으며 1위에 올랐다.

아이유는 지난 3월 '발렌지'를 시작으로 혁오밴드의 보컬 오혁과 듀엣으로 부른 '사랑이 잘'을 내놨다. 정규앨범 '팔레트'와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둘'의 수록곡들도 연이어 음원차트를 석권했다. 아이유가 올해를 빛낸 가수 1위를 차지한 건 2014년 이후 3년 만이다.

트와이스는 9.1%의 지지를 받으며 2위에 올랐다.

트와이스는 올해 2월 '낙낙'(Knock Knock), 5월 '시그널'(Signal), 10월 '라이키'(Likey), 12월 '하트셰이커'(Heart Shaker)까지 4곡의 히트곡을 냈으며 일본에서도 성공적인 데뷔 첫해를 보냈다. K팝 가수로는 6년 만에 일본 최대 음악 쇼인 NHK '홍백가합전'에 출연을 확정 짓기도 했다.

3위는 트로트 가수 장윤정(8.9%)에게 돌아갔다. '어머나', '조흔', '사랑아' 등 대표곡들이 꾸준히 사랑받는 건 물론, 올해 낸 싱글 '벚꽃길 2017', '당신편'도 인기를 끌었다. 장윤정은 이 조사에서 지난

10년간 2014년만 제외하고는 모두 5위 안에 드는 저력을 보였다.

4위는 그룹 방탄소년단(8.5%)이 차지했다. K팝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떠오른 방탄소년단의 노래 'DNA'는 미국 빌보드가 발표한 '2017년 베스트송 100'(Billboard's 100 Best Songs of 2017)에 선정됐다. 글로벌 팬덤에 힘입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2017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서 K팝 그룹 최초로 공연을 펼쳤으며, ABC·NBC·CBS 등 미국 3대 방송사와의 관련 토크쇼에 출연하기도 했다.

이밖에 이별 발라드 '종이로' 돌풍을 일으킨 윤종신(7.3%), 엠넷 프듀스 101 시즌2로 탄생한 워너비(7.1%), 대표적인 한류 스타 그룹 엑소(5.7%)가 각각 5~7위를 기록했다.

그룹 비뱅과 임창정은 공동 8위(5.0%)에 이름을 올렸으며, 이선희(4.6%)가 10위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은 올해 7·9·11월 세 차례에 걸쳐서 전국 만 13세부터 59세까지 남녀 4천200명을 면접 조사했다.

연령별 선호 차이를 반영하고자 아이돌 그룹은 전국 만 13~29세 남녀 1천500명에게 따로 물었다. 95% 신러수준에 표본오차는 전체 ±1.5%포인트, 아이돌은 ±2.5%포인트다.

윤하, 새 정규앨범 트랙리스트 공개...타이틀곡은 'Parade'

5년 만에 정규 컴백을 앞둔 싱어송라이터 윤하가 새 앨범 트랙리스트를 발표했다.

지난 18일 오후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윤하의 다섯 번째 정규앨범 'Rescue' 트랙리스트 이미지와 앨범에 참여한 아티스트 라인업을 공개했다.

공개된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Rescue'의 타이틀곡은 3번 트랙에 수록된 '퍼레이드(Parade)'로, 이번 앨범의 총괄 프로듀싱을 맡은 그루비룸(GroovyRoom)이 작곡과 편곡, 히트 작사가 서지훈이 작사에 참여했다.

여기에 지난 11일 디지털싱글로 선공개한 '종이비행기(HELLO)'를

포함해 윤하와 다양한 뮤지션들이 함께 작업한 'Rescue', '없던일처럼', 'Airplane mode', '예지몽', 'FEEL', 'Drive', '가', '답을 찾지 못한 날', 'Propose'까지 총 열한 개의 트랙이 수록됐다.

트랙리스트 이미지와 동시에 공개된 또 하나의 이미지에는 윤하와 이번 앨범을 함께 만들었던 아티스트 및 작사가들의 라인업이 담겨 있다. 특히 그루비룸을 비롯해 해 식케이, pH-1, BOYCOLD, 브라더수, 캔슬러, DAVI 등 라인업에 속한 가요계 핫한 뮤지션들의 이름이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다.

윤하의 새 정규앨범 'Rescue' 트



랙리스트, 참여 라인업 이미지를 본 누리꾼들은 "가요계 대세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했다. 완전 기대된다", "1곡이러니 대박 풍성하다", "타이틀곡 '퍼레이드(Parade)' 어떤 곡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다" 등

의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윤하의 새 정규앨범 발매지 작업과 오는 25일 서울 코엑스홀 C에서 열리는 크리스마스 콘서트 RE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늘의 순세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음력 11월 4일)



▶**지축** 지금은 힘이 들어 지친 상태이나 낙심은 금물. 서서히 운이 열릴 수. 신의를 저킬 때 도움이 올 듯. 여자는 예고 없는 나들이를 절대 삼가야 하며, 유혹에 넘어갈 수 있으니 절제하라.



▶**사지** 지금까지의 정성과 노력이 주위 사람들을 감동하게 한다.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에게 운이 함께하는 길이다. 매사 순조롭고, 귀인의 도움까지 예상된다. 사, 다, 표 성씨 여행 떠나려는 것은 좋으나 과로를 조심하라.



▶**유황** 무슨 일이든 신중히 생각한 뒤 처리하라. 순간적으로 생각해 서두르니 후회 또한 뒤따르는구나. 2, 8, 11월생 사업은 확장했다 하여 당장 이익을 바라보지 말고 먼 안목을 보고 생각함이 좋을 듯.



▶**진토끼** 의도 마리 토끼를 쫓는 분주한 상황이나 지나친 욕심이 모두 농치게 만든다. 매사에 겸허하고 남의 처지를 이해하는 편에 섰을 때 이득 또한 따른다. 소송은 화해할 듯. 와인색으로 단정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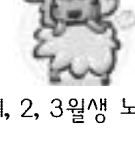
▶**용** 허황한 생각을 버리고 자신을 반성하라. 항상 준비하는 자세로 방심하지 말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 마련. 그, 다, 비 성씨는 마음을 넓게 갖고 부부 화합으로 가정 안정을 찾아야 할 때다.



▶**진뱀**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면 되던 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법. 일이 성사하는 열쇠는 자신의 마음가짐에 있음을 알고 신중히 처신해야 한다. 애정은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격. 몸가짐에 주의하라. 늦은 밤 운전은 삼가라.



▶**정말** 희망을 품고 힘껏 매진하면 반드시 좋은 성과가 나타나 가정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유를 가지라. 그, 못, 표 성씨는 이렇듯 저렇듯 망설임이 많을 수다. 욕심이 많아 현혹될 염려가 있으니 마음을 비우고 휴식을 취하라.



▶**정양** 행실을 바로 하고 집안을 다스리면 불안과 근심이 사라지니 마음 안정을 찾아 수양에 힘쓰라. 자신의 욕심만 부린다면 화근이 되따라니 근신하면서 내실을 기함이 좋을 듯. 1, 2, 3월생 노란색은 힘을 불려오니 단정할 것.



▶**유숭** 막힘없는 하루는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가짐에서 온다.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도 커지면 감당 못 할 수 있으니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고 매사에 신중하라. 3, 5, 8월생 귀인의 도움으로 기대한 일에 승산이 있을 듯.



▶**정우** 인생을 허망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고 싶은 일은 많으나 마음처럼 이뤄지지 않고 계획이 어긋나기 때문에 차질은 있으나 대책 마련을 위해 재경비한다면 차근차근 재기할 수 있겠다. 4, 5, 6월생 남쪽 방향 길.



▶**정계** 용기와 지혜만 승기를 잡을 수 있으나 일단 장기적인 안목으로 때를 기다림이 좋을 듯. 수입은 굴곡이 심할 때지만 시기가 지나면 안정을 볼 수. 4, 7, 10월생 건강을 지신만만하게 생각 말고 체크함이 좋겠다.



▶**정계** 뜻이 있는 곳에 행동이 수반하기 마련이다. 애정적인 부정행위는 피할 것. 꼬리가 길면 잡히는 것이니 파산이 이르게 될 행동은 필히 조심하고, 행하지도 말라. 생활에 부족함이 있어도 인내하며 도전할 때 도움의 손길이 따라줄 듯.